

2021년 4월 11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6편 8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82장(통432) 너 근심 걱정 말아라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다니엘 3장 24~30절(구약p.1237)

24. 그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25.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26.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27.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 탄 냄새도 없었더라
28.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술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30.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 말씀선포 / 순교적 신앙의 열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사 중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고통 두려움뿐 그 두려움 끝없네.” 라는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매일의 삶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시잠깐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온전하지 못함을 봅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방에 온갖 대적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성도에게는 더욱 삶이 수고의 짐이고 무거우며 괴로운 인생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찬양 가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그 두려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듯이 고난이 없으면 기적의 체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 역사는 대부분 당신의 백성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을 당해도 낙망하지 말고 오히려 이 시기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로 여기고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와 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지금의 어려움과 실망과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1. 믿음으로 구원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왕에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풀무 불 속에서 능히 구원하실 것이라고 장담한 대로 하나님은 기적으로 구원 역사를 행하십니다. 천사를 보내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머리털 하나, 겹옷 귀퉁이도 상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당신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기적은 성경에 셀 수 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4장 21~28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바로의 군대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구원 기적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진리를 증명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풀무 불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기에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이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구원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 해야 합니다.

-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왕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지금 우상숭배를 강요하며 풀무 불에 넣었던 왕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 경솔히 대하는 자는 누구든 엄벌에 처하겠다고 공포합니다. 또한 이렇게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세 친구의 목숨 건 순교의 신앙은 느부갓네살왕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야말로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비록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온 상황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과 바벨론의 많은 민족에게 당신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목숨을 건 순교의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야 합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킴으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3.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높임을 받게 하십니다.

- 느부갓네살왕은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습니다. 30절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세 사람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아낌없이 베푸십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0~12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 땅에서도 또한 천국에서도 인정하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높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순교의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도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절망 속에서 부활의 기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이 부활의 기적을 이미 체험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408장(통466) 나 어드 곳에 있든지

◎ 폐 회 / 주기도문